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2022. 6. 28 (화)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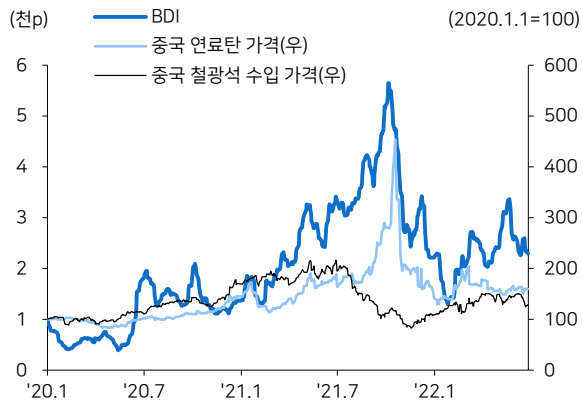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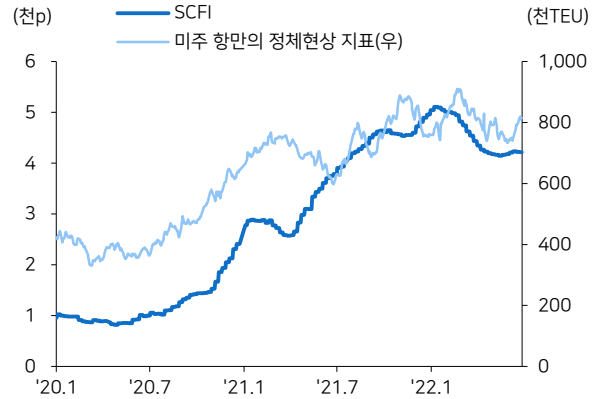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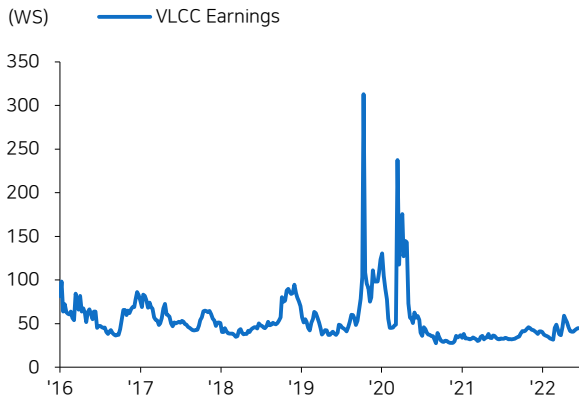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95.0p(-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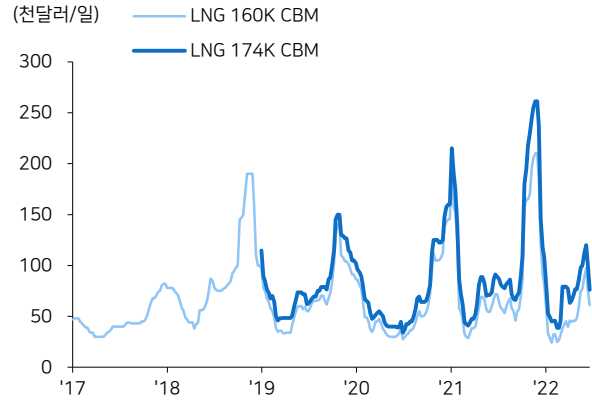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16.1(-5.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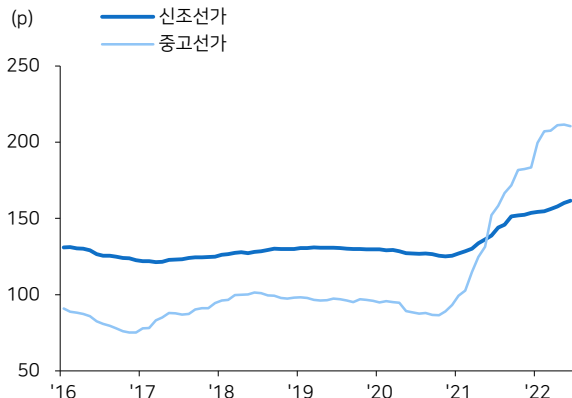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0.9p(+6.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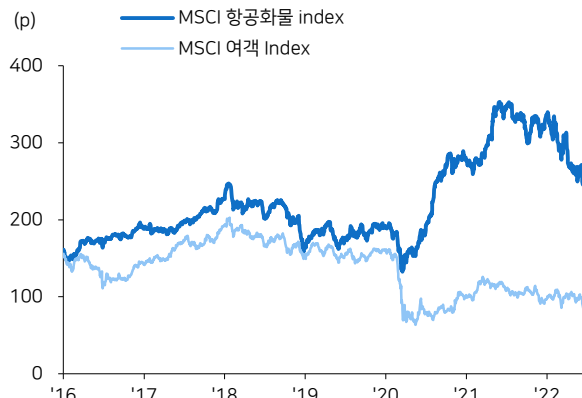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61.0p(-15.8p WoW)  
76.0p(-25.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5p(+0.7p WoW)  
210.5p(-0.4p WoW)



항공시장 지표 265.4p(+0.1p DoD)  
85.2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한국조선해양, 대형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총 7,449억원 규모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됨. 2,400톤급으로 2028년 인도될 예정임. (선박뉴스)

### Two shipowners teed up to take QatarEnergy's declared LNG carrier berths at HHI

QatarEnergy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선사 두군데를 언급함. 관련자들은 건조 및 용선계약이 이달내로 체결될 것으로 언급함. 노르웨이 Knutsen OAS Shipping이 기존 2척에 이어 추가 8척을 발주할 예정임. 일본 NYK Line 컨소시엄은 7척을 발주할 예정임. 한편, 그리스 TMS Cardiff Gas, 일본 Mitsui OSK Lines 등 기타 선사들은 몇 척을 발주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됨. (Tradewinds)

### LNG order surge keeps South Korea yards top of 'alternative fuel' newbuilding league

한국조선소가 강한 LNG선 발주세에 대체연료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지닌다고 보도됨. 6월초, 한국조선소가 Gross ton 기준 전체발주량의 40%를 수주함. 대체연료선박은 CGT기준 글로벌 발주량 중 62%를 차지했다고 알려짐. LNG선을 많이 수주하는 한국이 44%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LNG선 이외의 대체연료 선박은 국가간 큰 차이 없이 수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Ship orders down 45% in 2022 but prices still on the rise

2022년 발주량은 전년대비 45% 감소했지만 컨테이너선과 LNG선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보도됨. 상하이 봉쇄가 6월 1일부로 해제되며 글로벌 조선소들은 모두 작업 및 선박 인도를 재개함. LNG발주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21년 86척에서 2022년 6월기준 92척이 발주됨. 높은 후판가 등으로 신조선가도 시장을 뒷받쳐주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HMM moves into LNG fuelling with Navios container ships

HMM이 그리스 Navios Maritime Partners로부터 LNG DF 컨테이너선 2척을 장기계약했다고 보도됨. 7,700TEU급 선박으로 척당 2.045억달러 규모 계약임. 계약기한은 12년에 2년 옵션을 포함함. HMM의 첫 LNG DF 선박 용선인데, 주주들은 신조선가의 2배 수준 가격에 용선계약을 맺은 것에 의아해했다고 보도됨. 2024년 인도되는 Navios의 신조선은 척당 1.2억달러임. 그러나 일부에 따르면 금리 및 기타 유지보수 비용 고려 시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함. (Tradewinds)

### "러시아 원유, '뒷문'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러시아 원유가 '큰 손' 인도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됨. 세계 최대규모인 잠나가르 정유시설은 4월 원유 매입분의 5% 정도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5월 27% 급증한 바 있음.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REA)는 이곳에서 출발한 수출 화물의 20% 가량이 수에즈운하로 향했고,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에서 정제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다는 방증으로 분석함. 5월 인도는 일평균 80만배럴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4월대비 39만배럴 증가한 양임.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